

# “현재 인쇄업 어렵지만 미래 밝을 것”

인쇄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현재 인쇄문화산업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인쇄문화산업의 미래는 긍정적이고 밝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결과는 프린팅코리아가 창간 6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부터 5일까지 부경대학교, 신구대학, 인천전문대, 중부대학교(이상 가나다 순)의 인쇄학과 재학생 가운데 271명(남학생 148명, 여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흥미를 끄는 사실도 적잖았다. 첫째, 인쇄학이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인쇄업체가 예상외로 적었다. 이런 경향은 각 대학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저학년 학생들일수록 더욱 심했다. 이에 따라 알고 있는 업체나 입사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응답률을 비워놓은 경우가 절반을 넘길 정도로 많았다. 졸업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어 알고 있거나 입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부경대와 중부대의 4학년 학생들은 3개씩 기재하게 되어 있는 알고 있는 업체와 입사하고 싶은 업체를 모두 기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는 4개 대학에서 모두 조폐공사가 1위에 올랐다. 조폐공사는 공기업으로 안정성, 복리후생, 급여 등을 비롯하여 인지도에서 다른 기업을 크게 앞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뒤를 이어 캐논코리아, 대한교과서, 한국하이델베르크, 고모리, 아그파코리아, 성도GL, 다이니폰스크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신문사, 출판사, 제지회사로 취직하겠다는 대답을 한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기업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데다가 기재한 학생들도 1~2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입사희망 기업 및 알고 있는 기업의 순위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지역별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업체의 차이도 있었다. 다이니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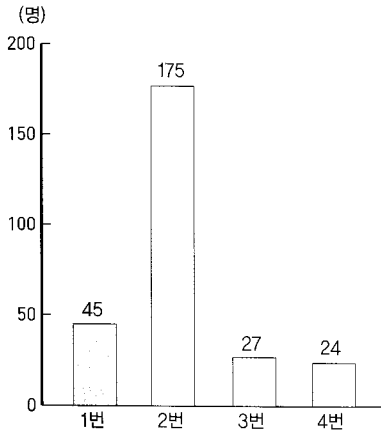
스크린은 부경대를 제외한 대학에서는 적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부경대에서는 높은 응답률을 보이기도 했다. 공통적인 현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과 선배들이나 학교와의 협력관계로 친숙한 업체로의 취업을 희망하거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인쇄업계의 현황과 정책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 특색이 드러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부산에 위치한 부경대 학생들은 지역경기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은 듯 다른 학교에 비해 인쇄산업의 현황을 묻는 문항에서 현저하게 낮은 점수대를 보였다. 타 지역 학생들이 중립을 의미하는 3점보다 다소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데 비해 부경대의 경우 다소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2점을 간신히 넘어서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13번 문항의 경우 4학년 51명 가운데 70%를 넘는 36명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1년 동안 인쇄문화행사에 참가한 것을 묻는 4번 문항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신구대와 인천전문대 학생들은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서울인쇄문화축제, 키페스, 직지순회전사회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부경대의 경우 80% 정도가 이런 문화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지방에서도 보다 많은 인쇄문화행사를 접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항별 응답으로 살펴 본 인쇄학과 학생들의 생각과 성향을 소개한다.

**1. 인채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인의 권유 ② 본인의 선택 ③ 진학상담 ④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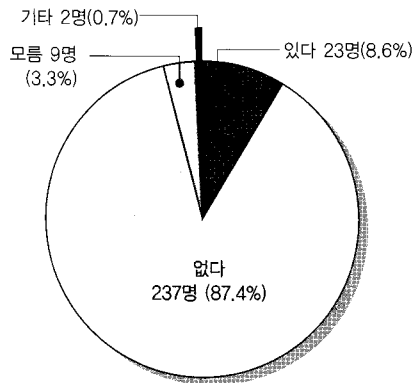
인채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본인의 선택이 175명으로 약 64.5%를 차지했다. 남학생들이 본인의 선택이라고 답한 비율이 여학생들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인채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도 연관이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답변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려를 한 끝에 결정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인의 권유라고 답한 것은 45명으로 16.6%였으며 성적에 따른 선택(10.0%)이나 진학 상담(8.9%)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2. 가족이나 친지중에 인채업 종사자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름 ④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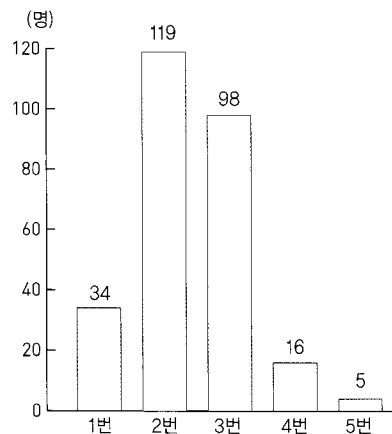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인채업 종사자가 있어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이었으나 의외로 87.4%라는 절대 다수가 없다고 답했으며, 있다는 응답은 23명(8.6%)에 그쳤다. 모른다고와 기타 응답은 미미한 수준

에 머물렀다. 이는 인채학을 전공하는데 학생의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현업에 있는 사람이 적은데다 만날 기회도 많지 않다는 것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3. 취업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려울 것 ② 다소 어려울 것 ③ 보통 ④ 다소 쉬울 것 ⑤ 매우 쉬울 것



젊은 층의 심각한 실업률이 인채학과 학생들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12.5%였으며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학생이 43.9%에 달했다. 이에 비해 보통이라는 대답은 36.2%를 차지했다. 다소 쉬울 것이라

는 대답은 5.9%에 불과했다.

남학생들의 경우 취업에 대한 어려움은 크지 않은 반면에 여학생들은 선호하는 부서가 기획/디자인에 편중되어 피부로 느끼는 취업의 문이 더욱 좁게 느껴지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 다음 인채문화 행사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행사를 찾아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직지순회전시회 ② 서울인채문화축제 ③ 청주직지축제 ④ 드루파 전시회(독일) ⑤ 키페스(Kipes) ⑥ 프린코(Printkor) ⑦ GAS(일본) ⑧ 중국인채기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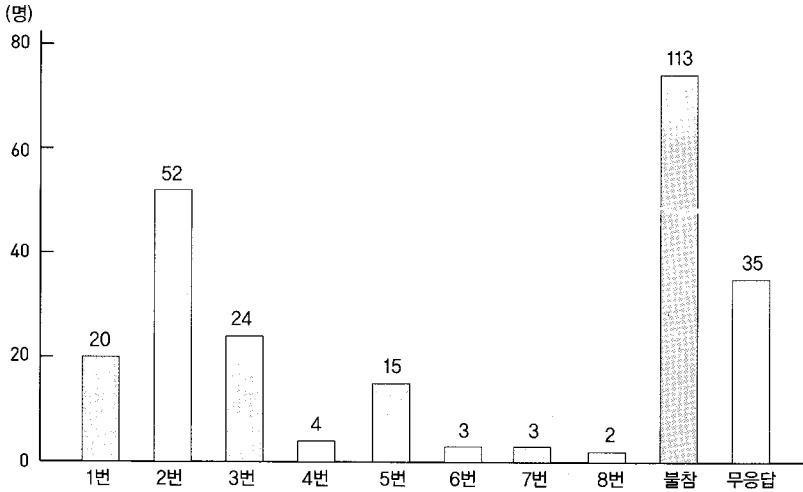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인채문화 행사를 참관한 적이 없다는 질문이 절반을 넘어선 113명(41.7%)에 달해 학생들에게 인채문화 행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식 응답을 통해 분석한 학생들의 응답을 보면 행사의 개최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적은 행사들도 그나마 수도권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방에서의 인채문화행사 참가는 더욱 어려움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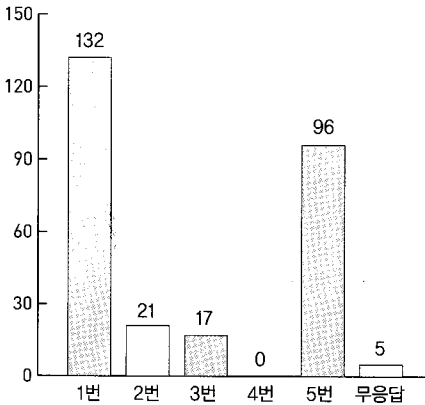
한편, 참가한 적이 있는 행사 가운데는 서울인채문화축제가 52명(19.2%)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직지순회전시회, 청주직지축제, 프린코 등이 그 뒤를 이었으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일본과 중국에서 열리는 인채문화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1%이내의 극히 미미한 수준의 응답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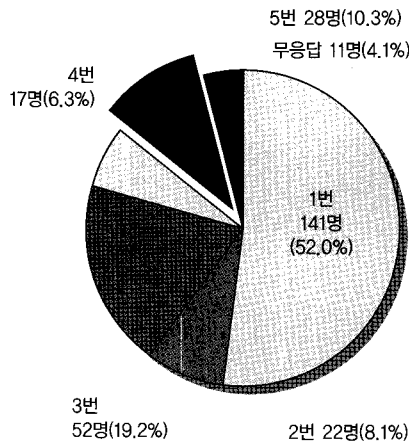
4. 한번이라도 참관 한 적이 있는 행사는 무엇입니까?



5. 세미나 및 전시회에 몇 번 참석하였습니까?



6. 해외정보는 어떻게 얻습니까?



세미나·전시회 참가 적어

5. 최근 1년동안 국내외 인쇄 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에 몇 번 참석하였습니까?

- ① 1~2회 ② 2~3회 ③ 3~5회 ④ 6회 이상 ⑤ 없다

인쇄학과 학생들에게 인쇄 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에 참석한 횟수가 적은 것은 학생들에게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여 기회를 확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홍보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예 참석한 적이 없는 경우가 96명(35.4%)이나 되는 것은 다소 충격적인 결과로 보인다. 특히 세미나 및 전시회에 참석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부경대의 참석률이 낮은 것은 산학협력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학생들의 주장이 많았다.

참석자 가운데서 1~2회 참석이 절반에 가까운 132명(48.7%)에 달해 4명중 3명의 학생들이 전시회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회 참석(7.7%)과 그 이상의 참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6. 인쇄관련 해외 정보에 대한 주된 접근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인터넷 ② 서적 ③ 전시회 및 세미나 ④ 인쇄전문 매체 ⑤ 기타

인쇄학과 학생들이 해외 정보를 접하는 주된 경로는 인터넷과 전시회 및 세미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절반은 넘는 141명(52.0%)이었다. 전시회 및 세미나를 통한 정보 습득은 52명(19.2%)이었으며, 서적과 인쇄전문매체를 통한 해외정보 습득은 소수 응답에 그쳤다. 기타 응답 가운데서는 교수님을 통해서 해외 정보를 접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해외정보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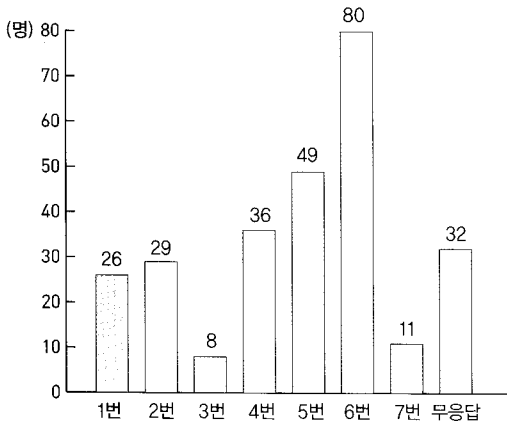
7. 해외정보 가운데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기를 희망 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프리프레스 ② 프레스 ③ 후가공 ④ 세미나 및 학술회의 ⑤ 해외전시회 ⑥ 신기술 및 신제품 ⑦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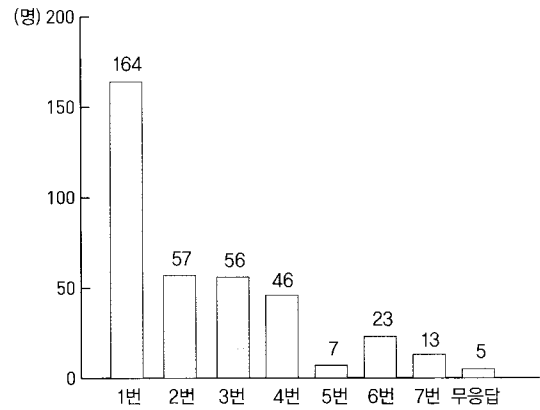
학생들이 원하는 해외 인쇄정보는 신기술 및 신제품이 80명(29.5%)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해외전시회 49명(18.1%), 프리프레스 29명(10.7%)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프레스, 후가공, 세미나 및 학술회의는 10%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률을 보여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에서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쇄학과 학생들의 관심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해외정보를 보다 많이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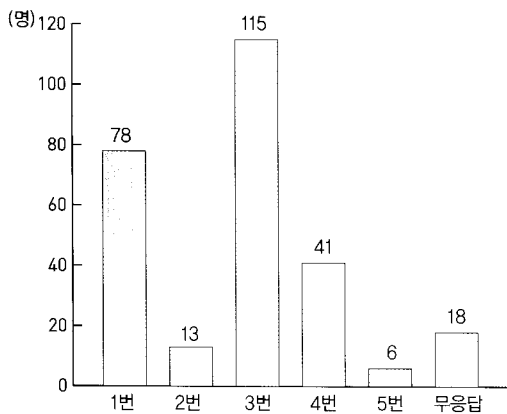
7. 해외정보 중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기를 희망 하는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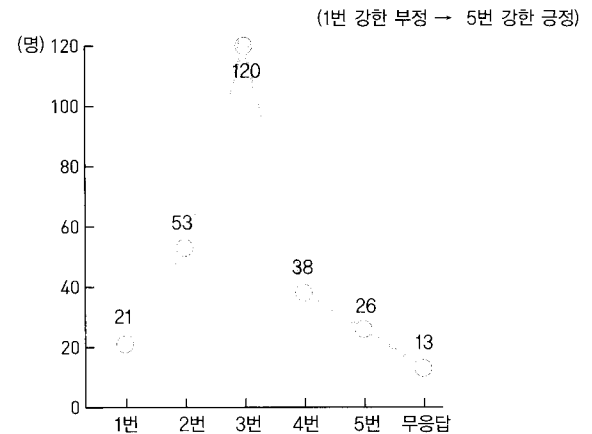
8. 취업 시 근무하고 싶은 부문은 어디입니까? (택 2)



9. 재교육 담당기관은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인쇄학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8. 취업 시 근무하고 싶은 부문은 어디 입니까? (택 2)**

- ① 기획·디자인부문 ② 생산관리 부문 ③ 품질관리 부문 ④ 영업 부문 ⑤ 프리프레스 부문 ⑥ 연구 부문 ⑦ 기타

복수의 응답을 허용한 문제였다. 기획/디자인 부문이 절반을 넘는 164명의 응답을 받으며 최고의 인기 부문을 확인시켜 주었다. 응답자 가운데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 96명이 응답했다. 뒤를 이어 생산관리 부문 57

명, 품질관리 부문 56명의 순이었으며 영업부문은 46명에 그쳤다. 인쇄학과 학생들이 인쇄보다는 기획과 디자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쇄업계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차원에서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리프레스 부문과 연구부문은 각각 7명과 23명이 라는 저조한 응답률을 보이는 그쳤다.

**9. 현업 종사자의 재교육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면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학에 위탁 ② 민간교육기관 ③

인쇄관련단체가 지정한 연구소 및 기관 ④ 기업체 부설교육기관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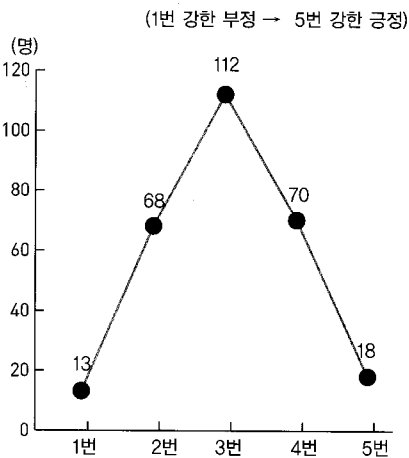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데 따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업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학생 42.4%가 인쇄단체가 지정한 연구소 및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에 위탁해야 한다는 응답은 78명(28.8%)이었다. 기업체 부설 교육기관은 41명(15.1%), 민간교육기관은 13명(4.8%)에 머물렀다.

인쇄전공 만족도 다소 부정적

10. 인쇄학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인쇄학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120명(44.3%)으로 가장 많았지만 다소 긍정과 강한 긍정을 합친 대답이 64명(23.6%)에 그친 반면 다소 부정과 강한 부정이 74명(27.3%)을 차지해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다소 불만이 있는 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응답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주관식 응답을 통해 드러난 입학할 당시에 생각했던 커리큘럼과 다르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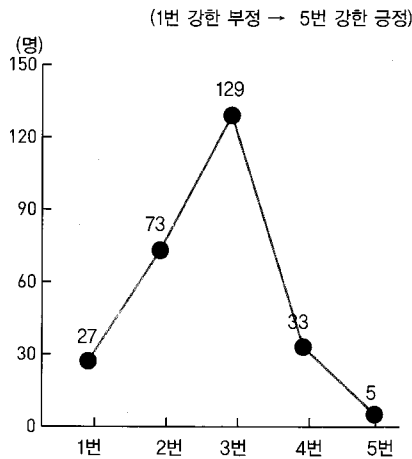
11.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국제 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중간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112명(41.3%)의 학생들이 중립적인 3점을 부여했으나 84명(31.0%)

이 부정적인 응답인 1점과 2점을 부여했다. 긍정적인 응답은 90명(33.2%)이었다.

12. 인쇄업계의 산학연계는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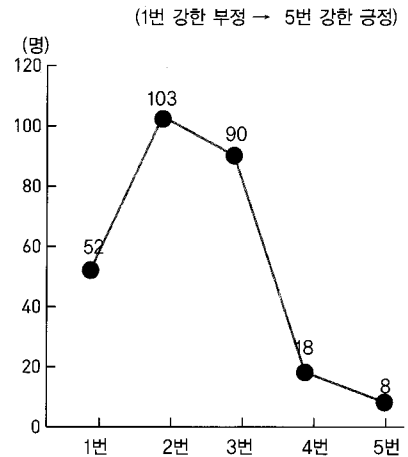
인쇄업계의 산학 연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인 응답이 129명(47.6%)로 가장 많았으나 매우 부정적인 응답이 27명(9.9%)이나 되었고 다소 부정적인 태도도 73명(27.0%)에 달했다. 이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은 모두 합쳐서 38명(14.0%)에 그쳤다. 주관적인 응답에서도 학생들은 산학협력의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접할 기회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13. 인쇄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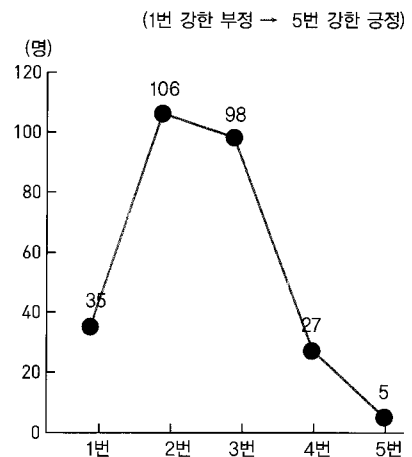
학생들은 현재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립적인 응답이 90명(33.2%)에

그친데 비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2점에 103명(38.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매우 부정적인 응답도 52명(19.2%)에 달해 절반이 넘는 155명(57.2%)이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0여명에 그쳤다.

이는 현재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적으로는 부산지역의 불경기를 반영한 타인지 부경대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56명(68.3%)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0%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14. 접하고 있는 해외인쇄 정보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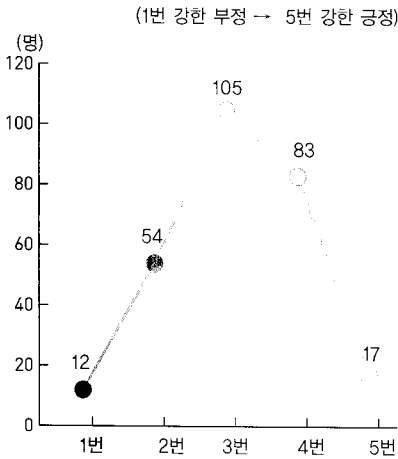


해외인쇄 정보물에 대한 접근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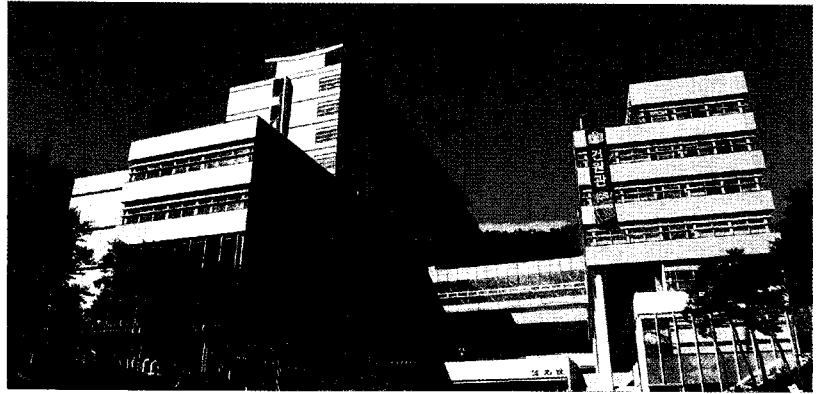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41명(52.0%)이 지금 접하는 해외인쇄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대답은 32명(11.8%)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들은 98명으로 36.2%를 차지했다.

주관식 응답을 통해서 학생들은 해외인쇄 선진국과의 교류활성화, 해외정보를 담은 서적의 출간 확대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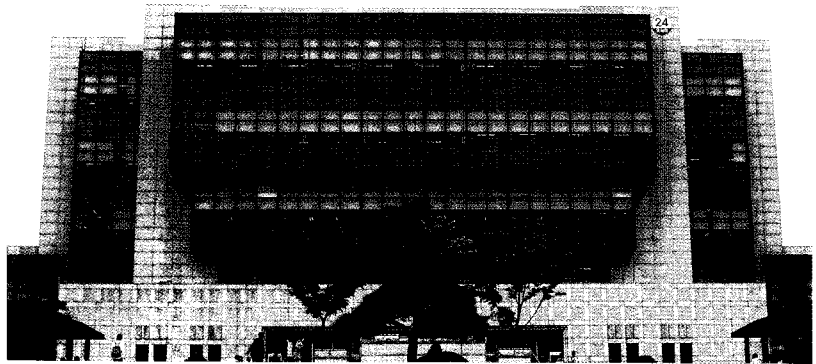
**15. 인쇄문화산업의 향후 성장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64명(23.6%)의 학생들이 인쇄문화산업의 앞날이 어두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비해 밝은 희망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학생이 많았다. 다소 긍정이라는 응답이 83명(30.6%)이었으며 매우 긍정도 19명(7.0%)로 40%에 가까운 학생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이는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쇄업계가 인쇄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인정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



충부대(위)와 부경대 (아래) 전경



은 105명(38.7%)이었다.

입사회망업체, 인쇄사는 대한교과서·기자재 업체는 캐논코리아

**16~17. 인쇄업체 중에서 알고 있는 회사 및 입사하고 싶은 회사는?**

인쇄업체 가운데 알고 있거나 취직하고 싶은 회사를 묻는 질문이었다. 학생들의 대답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이 없었으나 조폐공사는 알고 있는 기업과 취직하고 싶은 기업에서 최다 응답을 받아 최고 선호 기업이 되었다. 캐논코리아, 한국하이델베르크, 일진 PMS(고모리), 성도GL, 대한교과서, 교학사, 아그파코리아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업계별로는 제지회사 계열과 출판계열을 막연하게 희망하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육군인쇄창과 대기업을 희망하

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인쇄업계는 취직은 어렵지 않을 듯하다, 먹고 살기가 힘들 듯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18. 우리나라 인쇄 관련 단체 및 기관에 바라는 점을 서술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인쇄관련 단체 및 기관에 바라는 것은 인쇄문화산업의 저변 확대 및 위상 강화, 일자리의 확충과 학교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요약됐다. 그 외의 답변으로는 여성의 취업을 위한 배려 확대, 전문 인력 육성 및 자동화,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홍보 강화, 학회 및 세미나의 개최 확대 등이 있었다. 아색적인 대답으로는 인쇄메카로서의 충무로의 위상강화를 위한 정비 사업 실시, 인쇄와 관련된 전문매체가 더욱 늘어나기를 바라는 견해도 있었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